

## 20세기말과 21세기초에 나타난 여성 웨딩코디네이션 비교

박현주 · 박숙현<sup>†</sup> · 이순덕\*

경성대학교 의상학과, \*동주대학 패션스타일리스트 & 주얼리과

### A Comparison of Woman's Wedding Coordination between the End of 20th and the Beginning of 21st Century

Hyun-Ju Park · Sook-Hyun Park<sup>†</sup> · Soon-deuk Lee\*

Dept. of Fashion Design & Merchandising, KyungSung University

\*Dept. of Fashion Stylist & Jewelry, DongJu College

접수일(2008년 6월 20일), 수정일(2008년 8월 19일), 게재확정일(2008년 9월 16일)

#### Abstract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compare and contrast the changes in wedding coordination between the end of 20th and the beginning 21st centuries. one wedding magazine was selected and used to supply data. four hundred and thirty one wedding photos were examined from a popular wedding magazine called "My Wedding", issued between 1993 and 2007. the results are described below. First, changes in make-up and hair style: from the end of 20th to the beginning of 21st centuries, the style of make-up changed from being exaggerated with strong colors which made the typical brides make-up to utilizing the minimal color selection which made natural-looking. the hair style has also changed from up style to natural hair style. Second, changes in wedding gowns: the style of wedding gowns changed from the shapes of X line which was to cover the body figure of bride to simple shapes such as an strapless and fish-tail style of gowns. Third, changes in wedding jewelry and accessories: hair pieces consisted of large flower crowns and hair bands with flowers in the end of 20th century. the various sizes and colors of tiaras and crowns were popular in the beginning of 21st century. for wedding accessories, large shapes of earrings and necklaces were popular at the end of 20th century, whereas various size and styles were more fashionable later on. in conclusion, brides in the beginning of 21st century prefer to wear sexy or alluring dresses with natural hair styles and make-up, in contrast to the classic or traditional wedding outfits that were more popular at the end of 20th century.

**key words:** Wedding coordination, Wedding make-up, Wedding hair style, Wedding dress, Wedding accessory; 웨딩코디네이션, 웨딩메이크업, 웨딩헤어스타일, 웨딩드레스, 웨딩액세서리

#### I. 서 론

현대사회에서 토틸코디네이션은 매 시즌 새롭게 부각되는 유행스타일의 영향을 받으며 변화되고 있다. 의모지상주의 시대의 원만한 대인관계와 성공적인 사회

활동을 위하여 현대여성들은 시즌별 트렌드에 부합하는 개성 있는 이미지를 연출하기 위해 의복뿐만 아니라 메이크업, 헤어스타일, 액세서리 등을 조화롭게 활용하여 매력적인 자신만의 스타일을 창출해내고 있다.

이러한 전체적인 이미지가 중시되는 경향으로 인하여 정숙과 순결을 강조하던 전통적인 웨딩코디네이션에 각 시대별 패션·뷰티 트렌드가 반영되면서

<sup>†</sup>Corresponding author  
E-mail: shpark@ks.ac.kr

21세기초 부터는 웨딩드레스 및 헤어·메이크업도 시대에 따라 점차 변화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과거 웨딩메이크업과 헤어스타일은 당시의 유행 메이크업과 헤어스타일과는 달리 결혼의 의미에 상징성이 부여된 신부만의 아름다움을 표현할 수 있는 특별한 기준과 정형화된 코드가 있었다. 신부의 웨딩드레스와 액세서리도 평상시 패션과는 달리 결혼의 신성함과 엄숙한 의미를 표현할 수 있는 스타일로 클래식하면서 정숙한 여성성을 강조하는 엘레강스한 이미지로 확립되어 있었다. 하지만 최근의 웨딩코디네이션은 패션·뷰티 전반에 걸쳐 내추럴하면서도 섹시함을 강조하는 패션 트렌드와 다양화·개성화를 중시하는 젊은 세대들의 자기표현적 욕구가 반영되면서 과거와는 다른 경향을 보이고 있다.

지금까지 웨딩 관련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이미연(1999), 이미연, 이명희(2000, 2002), 김봉주(2002), 신은정, 권혜숙(2002)의 드레스 디자인 관한 연구, 그리고 배형자(2002), 정현주, 한유정(2003), 조미영(2003), 김향남(2003), 김소영(2003)의 메이크업과 헤어스타일에 관한 연구, 김영상(1996), 유재숙(2006)의 마케팅 측면에서의 연구 등이 대부분이었고, 웨딩패션 및 뷰티 분야와 관련된 전반적인 흐름을 고찰하여 현재와 과거의 웨딩코디네이션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에 관한 차이를 비교한 연구는 없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시대별로 분석 가능한 자료가 현존하는 잡지를 선정하여 첫째, 세기말부터 현재까지의 웨딩드레스, 메이크업, 헤어스타일 및 액세서리의 변화과정을 시대별로 분석하고 둘째, 세기말과 세기초에 나타난 웨딩코디네이션의 차이를 규명하여 패션·뷰티 트렌드가 어떻게 수용되어 새로운 웨딩코디네이션을 창출해내는지에 관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다.

연구방법은 문헌연구로서 지명도가 높은 웨딩잡지 마이웨딩을 선정하여 창간년도인 1993년부터 2007년까지 잡지에 나타난 웨딩사진 431점을 선별하여 각각의 코디네이션 요소 중 출현빈도율이 높은 것을 선택하여 자료분석에 사용하였다. 년도별 사진자료 수는 <표 1>과 같다.

## II. 웨딩코디네이션

웨딩코디네이션은 결혼예식에 필요한 메이크업, 헤어스타일, 웨딩드레스, 웨딩액세서리 등을 어울리는

<표 1> 연구자료 시대별 분류

	세기말	세기초
년 도	1993년 (31점)	2000년 (24점)
	1994년 (29점)	2001년 (22점)
	1995년 (32점)	2002년 (25점)
	1996년 (33점)	2003년 (21점)
	1997년 (27점)	2004년 (28점)
	1998년 (29점)	2005년 (29점)
	1999년 (37점)	2006년 (31점)
		2007년 (33점)
소 계	(218점)	(213점)
합 계	(431점)	

것끼리 매치시켜 통일감 있는 복장미를 완성시키는 것을 말한다(박숙현, 2007). 과거에는 정형화되어 있었고 일반 패션 유행과는 다른 점이 있었지만 최근에는 일반 패션 트렌드를 반영하는 추세로 변화되고 있다.

최근 몇 년간 패션·뷰티 트렌드의 전반적인 경향을 살펴보면 의복스타일은 다양한 스타일이 공존하는 가운데 몸에 슬림하게 밀착되어 체형을 한층 돋보이게 하거나 인체의 노출이나 비침으로 여성스러운 섹시함을 강조한 스타일이 유행되어 지고 있다. 메이크업은 피부를 투명하게 연출하여 자연미를 강조하고 아이섀도우나 립스틱 등의 색상을 최대한 배제하여 내추럴하게 표현하는 것이 포인트이다. 헤어는 과장된 부풀림보다는 내추럴하면서도 다양한 스타일의 자연미를 강조한 부드러운 스타일이 유행되어지고 있다.

### 1. 웨딩메이크업

일반적으로 메이크업(Make-up)의 사전적 의미로는 ‘제작하다’, ‘보완하다’하는 뜻이다. 화장품이나 도구를 사용하여 신체의 아름다운 부분은 돋보이도록 하고 약점이나 추한 부분은 수정하거나 보완하는 미적 가치를 추구행위의 의미로 널리 통용 된다(권규정 외, 2006). 메이크업은 우리나라에서는 화장(化粧), 서양에서는 토일렛(toilet), 드레싱(dressing), 페인팅(painting), 마귀아쥬(maquillage) 등으로 표현된다. 용어의 의미를 살펴보면 프랑스어인 마귀아쥬는 원래 분장을 의미하는 연극 용어이였으며 토일렛은 드왈렛뜨가 1540년경 영국에 전해지면서 변한 용어로서, 화장을 포함한 치장 전반을 가리킨다(김광숙 외, 2002).

페인팅이라는 용어는 영국의 문호 셰익스피어(W,

Shakespeare, 1564-1616)의 희곡에서 처음 등장하였다. 이는 16세기에 이탈리아에서 전래된 짙은 메이크업을 가리킨다(김희숙, 이은임, 1996). 16-17세기를 통하여 연백을 원료로 만든 분을 페인트라고 불렀고 후에 백납분에 색상과 향료를 섞어 만든 다채로운 안료로 얼굴에 색칠하는 것을 페인팅이라 하였다. 17세기 초 영국의 리처드 크라슈(Richard Crashou)가 최초로 메이크업이라는 단어를 사용했고 현대에 와서 메이크업이라고 하는 화장 형태의 호칭은 20세기 미국의 할리우드 전성기에 맥스 팩터(Max Factor)가 대중화시켰다(이혜성, 1996).

웨딩메이크업이란 신성한 의식인 결혼식을 위한 메이크업으로 한 여성이 제2의 인생을 시작하기 위해 첫 걸음을 내딛는 의식을 위해 순결하고 아름답게 꾸미는 메이크업을 말한다(김소영, 2003). 웨딩메이크업의 가장 중요한 점은 신부를 최대한 아름답게 표현하여야 하므로 혈색이 느껴지는 피부 톤에 성숙함과 우아함을 연출하고 드레스 디자인과 신랑, 신부의 조화된 분위기가 적절히 연출되어 효과적으로 표현되어야 한다. 웨딩메이크업은 신성한 의식인 결혼식을 위한 메이크업으로 신부와 신랑의 안면 형과 이미지에 부합되는 분위기와 예식장소, 시간 등을 고려하여 연출해야하며 신부의 피부톤이나 스타일, 드레스의 디자인과 색채 등을 고려하는 일이 중요하다(배형자, 2002). 웨딩메이크업은 외형적 아름다움의 추구행위뿐만 아니라 건강미를 나타내는 것을 포함하여 자연적인 고유미와 개성미를 통하여 최고의 아름다움으로 신부를 연출해야 하며 얼굴의 상처, 흉터 등 여러 가지 결점을 커버하여 심리적인 안정과 치유를 가능하게 한다(김소영, 2003).

## 2. 웨딩헤어스타일

헤어스타일은 영향력 있는 여러 가지 신체적 외모 변인 중의 하나로서 개인의 인상을 형성하는 중요한 단서로 작용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스타일과 이미지 변화로 개인을 표현하는 수단이 되기도 한다(정현주, 한유정, 2003). 얼굴 매력은 입, 눈, 얼굴 구조, 머리카락, 코의 순서로 중요하다고 하여 헤어스타일도 인상에 영향을 주는 요인임을 시사하고 있다(조미영, 2003). 결혼식에서의 헤어스타일은 신부의 인상을 형성하는 중요한 요인 중 하나로서 일반적인 헤어스타일과는 달리 장식과 기교를 부린 인위적이고 특징적인 형태로 표현된다. 이와 같은 웨딩헤어스타일은 주

로 머리카락을 다발 지어 정수리 부근이나 머리 뒤쪽에서 장식 하는 형태가 일반적이는데, 이 스타일은 여성의 우아하고 기품 있는 모습을 시도하여 아름다운 이미지와 지적인 성품을 나타내 주는 효과가 있다고 나타났다(조민희, 2007). 웨딩드레스를 입는 신부들은 드레스에 맞는 헤어스타일을 연출하기를 원하는데 이것이 의식용 머리 형태인 웨딩헤어스타일 이라고 한다(김명기, 2002). 웨딩 업스타일이란, 결혼식 때 신부가 하는 머리 형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형태적으로 크게 시논스타일과 롤스타일, 토대가 있는 스타일로 나눌 수가 있고 스타일이 형성되는 위치에(두상 윗부분에 스타일을 내는 경우, 두상 중간 부분에서 스타일을 내는 경우, 두상의 아래 부분에서 스타일을 내는 경우) 따라 다양한 분위기와 개성을 연출할 수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조미영, 2003). 최근에는 짧게 컷한 스타일이 유행되면서 신부들의 짧은 본인의 머리를 인위적인 가모를 사용하지 않고 짧은 스타일 그대로 살려 주면서 자연스러운 웨이브를 넣어 내추럴하면서도 로맨틱한 분위기를 연출하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다.

## 3. 웨딩드레스

웨딩드레스는 서양식 결혼에서 신부가 착용하는 의상의 총칭으로 브라이달 드레스(bridal dress), 웨딩가운(wedding gown), 불어로는 로브 드 마리에(Robe de marie)라고도 하며, 그 당시 사회관습, 종교, 문화 등의 영향을 받으며 지속적인 변화를 거쳐 현재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김향남, 2003). 웨딩드레스의 구성요소는 흰색의 드레스, 베일(면사포), 꽃과 기타 장식구로 이들 각각은 상징적 의미를 갖고 있는데, 흰색의 웨딩드레스는 신부의 순결을, 흰색의 베일은 신부의 정절을 뜻하며, 장미, 카네이션, 프리지아, 영란 등의 백색 꽃은 오렌지 꽃에서 유래한 것으로 본래 다산과 순결을 상징하였다. 혼례의식에서의 웨딩드레스는 각 나라의 특유하고도 전통적인 풍습과 관습, 민족의식을 잘 나타내어 주며 어떠한 의복보다 가장 가치를 두어 치장하므로 그 시대의 미의식도 알아 볼 수 있는 중요한 대상이 되어왔다. 사실상 고대에서 현대에 이르기까지 웨딩드레스의 형태는 주로 시대의 패션 경향을 따르며 웨딩드레스가 갖는 상징성으로 인하여 일반 의복에 비해 많은 디테일이 첨가되었고 아름답게 신부를 연출하기 위해 실루엣, 색상, 소재, 장식구 등이 조화롭게 사용되고 있다(신은정, 권혜숙, 2002).

4. 웨딩액세서리

액세서리라 하면 목걸이, 반지, 팔찌, 귀걸이, 편 등의 장신구만을 의미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외에 우리가 패션 소품이라 말 하는 구두, 백, 모자, 벨트, 스카프, 머플러 등 우리 몸에 걸치는 모든 것을 말한다(김월순 외, 2004).

웨딩드레스에 사용되는 액세서리는 베일을 비롯하여 웨딩햇, 크라운, 꽃, 리본, 부케, 장갑, 구두 또는 주얼리 등이 있다. 웨딩드레스에 있어서 장식은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것으로서, 드레스 자체의 이미지를 표현하는 데 있어 그 효과를 더욱 높여주는 역할을 하며, 또한 단순한 형의 드레스에 장식을 적절하게 이용함으로써 화려함이나 귀여움 등 다양한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도록 해준다(이미연, 이명희, 2002). 장식적 효과를 내기 위해 머리 위에 꽂거나 쓰는 것들을 통틀어 헤드드레스(Head Dress)라고 한다. 헤드드레스는 웨딩드레스의 조화는 물론이고 베일을 썼을 때 어색하지 않고 전체적 분위기와 어울리는지를 고려해야 한다(윤혜숙, 2000). 그리고 형태나 소재에 있어서도 일반 헤어액세서리와는 달리 우아하고 화려한 보석장식이나 꽃장식 등이 주로 사용되며 드레스와 같은 색상이나 소재를 사용하기도 한다. 웨딩 헤드드레스의 종류로는 꽃, 크라운, 웨딩모자, 헤어밴드 등이 주로 이용되는데 꽃, 헤어밴드장식은 소박하고 정감 있는 분위기를 연출하고 크라운은 화려하고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연출하며 웨딩모자는 야회 결혼식이나 가든 웨딩에 어울린다(정현주, 한유정, 2003). 웨딩주얼리는 과거에는 큰 사이즈의 진주, 꽃모양의 주얼리를 전통

적으로 착용했지만 최근에는 화이트, 골드, 실버톤의 고급스러운 주얼리를 선택하여 화려하게 빛나는 스톤 주얼리로 우아하면서 기품 있는 이미지로 연출하거나 귀여운 스타일을 돋보이게 하는 은은한 파스텔 핑크 컬러 주얼리로 사랑스러운 신부의 이미지를 연출한다.

III. 시대별 웨딩코디네이션의 변화

1. 웨딩메이크업 및 웨딩헤어스타일

메이크업은 눈썹, 눈화장, 블러셔, 입술로 분류하여 형태 및 색채의 변화를 살펴보고, 헤어스타일은 형태만을 고려하여 고찰하였다. 시대별 웨딩메이크업과 헤어스타일 변화를 살펴본 결과는 <표 2>와 같다.

눈썹은 93-99년도에는 검정, 회색의 각진형, 아치형이었지만 2000년도에 가면서 아치형 눈썹의 형태로 자연스러운 브라운색으로 표현되었다. 눈화장은 93-97년도까지는 전체적으로 붉은색이 많이 나타났다. 98-03년도에는 오렌지, 핑크, 브라운색으로 짙게 표현되었고 04-07년도는 핑크, 퍼플, 베이지 등의 부드러운 톤의 색상으로 붉지 않으면서 내추럴하게 나타났다. 블러셔는 93-94년까지는 웨딩의 느낌이 강했지만 95-99년에는 광대뼈에서 관자놀이일 부분까지 강한 컬러의 블러셔를 넓게 바르거나 윤곽수정과 같은 웨딩과 함께 공존하였고 00-07년도에는 광대뼈를 감싸듯 혈색을 보완해주며 자연스럽게 여성스럽게 표현되었다. 입술은 93-96년도에는 레드, 와인, 진달래색 등의 짙은 붉은색으로 과장된 듯한 입술라인을 표현하였으며 97-99년도에는 와인, 레드계열의 붉은색 립스틱과 브라운, 핑

<표 2> 웨딩메이크업/헤어스타일

부위 년도	눈썹	눈화장	블러셔	입술	헤어스타일
93-94년	각진형 (검정, 회색)	와인, 오렌지, 브라운색 (붉은색의 정형화)	오렌지, 브라운 (웨딩의 개념)	레드, 브라운, 와인 (아웃 커버)	올림형 (두상 윗부분에 스타일)
95-96년	아치형 (검정, 회색)	오렌지, 핑크 브라운(짙은색)	오렌지, 핑크		
1997년	등근형				올림형 (두상 중간 부분에 스타일)
98-99년	각진형, 아치형		오렌지, 레드		
00-03년	아치형 (자연스러운 브라운색)	핑크, 퍼플, 베이지	핑크, 살구	핑크, 오렌지 (립글로스 사용)	올림형, 밀머리형
04-06년		열은 핑크, 오렌지 골드(필)	핑크, 살구 (블러셔를 강조)	립글로스 사용 (투명한 핑크)	밀머리형
2007년		핑크, 퍼플, 베이지 (색상을 절제)	핑크, 살구 (자연스럽게 표현)	핑크계열 (자연스러운 입술 색)	밀머리형, 풀어내리는형

크, 오렌지계열의 중간색이 함께 공존하는 과도기를 거쳐 00-07년도 에는 립글로스를 사용하여 자연스럽게 내추럴한 색상으로 표현 되어졌다.

헤어스타일은 93-96년도에는 두상 윗부분에 스타일을 내는 올림형이 유행되다가 97-03년도에는 두상 중간 부분에 스타일을 내는 올림형이 함께 공존하는 과도기를 거쳐 04-07년도에는 밀머리형과 흘러내리는 듯한 자연스러운 헤어스타일이 연출되었다. “2007 메이크업 트렌드”(2007)에 따르면 최근에는 짧은 형태의 본인의 헤어스타일을 가모로 인위적인 올림머리로 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웨이브를 넣어 짧은 헤어스타일을 사용하여 큐트한 이미지로 연출하는 경우도 있다.

2. 웨딩드레스

웨딩드레스는 실루엣, 네크라인, 소매로 분류하여 각각의 디자인 요소 중 출현빈도가 높은 것을 선택하여 고찰하였다. 시대별 웨딩드레스 디자인 변화를 살펴본 결과는 <표 3>과 같다.

실루엣은 93-02년도에는 돛형, A라인, 벨형의 실루

엣이 유행되어지다가 03-04년도 에는 좁아지는 벨형, 05-07년도에는 튜블러 실루엣이 유행된 것으로 보인다. 네크라인은 93-04년에는 라운드, 하이N, 스윗하트, 스퀘어, 오프숄더 등 다양한 네크라인이 유행되어 지다가 05-07년도에는 캐미솔과 베어드 탑이 유행되어 지고 있다. 소매는 93년도에는 퍼프소매가 유행되어졌고 94-04년에는 긴 소매, 7부 타이트, 쇼트 등의 다양한 소매들이 유행되다가 05-07년에는 캡, 쇼트, 베어드 탑이 유행되어 지고 있다.

3. 웨딩액세서리

시대별 헤드드레스, 귀걸이, 목걸이, 베일 등의 웨딩 관련 액세서리를 분류하여 살펴본 결과는 <표 4>와 같다. 헤드드레스는 93년에는 생화, 리본, 헤어핀이 사용되었고 94-98년도에는 큰 사이즈의 화관과 크라운이 사용되어졌고 99-00년도에는 화관과 중간 크기의 크라운이 사용되어졌고 01-07년도에는 다양한 크기의 크라운이 사용되어졌다. 귀걸이는 93-94년에는 큰 사이즈의 드롭형(귀에서 길게 늘어지는 스타일) 귀걸이에서 95-99년에는 중간 사이즈가 유행되다가

<표 3> 웨딩드레스

년 도 \ 부 위	실루엣	네크라인	소 매
1993년	돛 형	라운드, 하이N	퍼프, 7부 퍼프
94-95년	돛형, 벨형	라운드, 스퀘어, 스윗하트N	긴 소매, 7부 타이트, 쇼트
96-97년	A라인, 벨형		
98-99년		스퀘어, 라운드, 스탠드, 스윗하트N	긴 소매(망사), 쇼트, 7부 타이트, 캡소매
00-02년	벨 형	하이N, 오프숄더, 스퀘어, 라운드, 스윗하트N	7부 타이트, 캡, 쇼트
03-04년	좁아지는 벨형		
2005년	튜블러형	라운드, 스윗하트N, 캐미솔	캡, 쇼트
06-07년		베어드 탑N, 캐미솔	베어드 탑

<표 4> 웨딩액세서리

년 도 \ 부 위	헤드드레스	귀걸이	목걸이	베 일
1993년	생화, 리본, 헤어핀	드롭형(빅 사이즈)	착용 절제	다양한 위치, 형태의 베일 연출
1994년	화관(큰 사이즈)			
95-97년	크라운(앞 중심에 장식)	드롭형, 버튼형(중간 사이즈)		
1998년	화관(꽃장식)	버튼형(작은 사이즈)		
1999년	크라운(중간 사이즈)	드롭형, 버튼형(작은 사이즈)		
00-01년	크라운(작은 사이즈)	드롭형, 버튼형(중간 사이즈)		
02-03년	크라운(다양한 크기)	트롭형, 버튼형(작은 사이즈)		
04-07년	크라운(다양한 크기,색상)	트롭형, 버튼형(작은 사이즈)	진주, 크리스탈의 초커, 프린세스	

00-07년에는 다양한 크기의 드롭형, 버튼형(나사조임 형태로 귀에 밀착하는 스타일) 귀걸이가 유행되어졌다(박숙현, 2007). 목걸이는 93-04년에는 목걸이는 거의 착용하지 않았고 05-07년도에는 베어드 탑의 머메이드 드레스에 맞게 목걸이 착용이 점차 늘어나게 되었다. 베일은 연구한 문헌에는 헤어스타일을 보여 주기위해 베일 착용이 생략되는 경우가 많아서 시대적인 실제 예식이 행해지는 사례들을 참고한 결과 93-07년도에는 다양한 길이와 디자인의 베일 형태가 꾸준히 착용되어 지고 있다고 사료된다.

이상에서 고찰한 시대별 웨딩코디네이션 변화양상을 표로 정리하면 <표 5>와 같다.

#### IV. 세기말과 세기초의 웨딩 경향 비교

##### 1. 웨딩메이크업 및 헤어스타일

세기말과 세기초의 웨딩메이크업과 헤어스타일의 차이 비교를 분석한 결과는 <표 6>과 같다.

<표 6>에서 결과를 보면, 눈썹은 세기말에는 검정, 회색의 각진 눈썹, 과도기에는 각진형과 아치형, 세기초에는 자연스러운 곡선의 브라운색 아치 눈썹이 유행되었다. 눈화장은 세기말은 오렌지, 와인색 등의 붉은 색을 사용하였고 과도기에는 오렌지, 핑크계열의 짙은색 그리고 세기초에는 오렌지, 핑크, 베이지계열로 색상 톤이 낮아지면서 색상을 배제하거나 내추럴하게 표현하고 아이라인과 풍성한 속눈썹을 사용하여 포인트 주는 것으로 변화되었다. 블러셔는 세기말에는 갈색으로 세팅하듯 얼굴 윤곽수정에 포인트를 두었고, 볼 쪽에 혈색을 부여하는 강한 컬러의 블러셔가 공존되는 과도기를 거쳐 세기초에는 핑크, 오렌지 등으로 볼 주위를 가볍게 터치해 자연스럽게 표현되어지고 있다. 입술은 세기말에는 레드, 진달래색 등으로 과장된 입술라인을 표현하였으나, 브라운, 와인, 레드계열의 짙은색에 립글로스를 중간에 넣어 글래머스하게 표현하는 과도기를 거쳐 세기초에는 글로시하면서 본인의 입술색에 가까운 핑크계열로 은은하게 변화되었다.

헤어스타일은 세기말에는 두상 윗부분에 스타일을 내는 올림형에서 두상 중간 부분에 스타일을 내는 올림형과 밀머리형의 스타일이 공존하는 과도기를 거쳐 세기초에는 밀머리형과 흘러내리는 듯한 내추럴한 스타일이 유행되고 있다.

이상의 결과에서 볼 때 메이크업은 과거에는 과장되고 짙은 색상을 사용하여 신부만의 정형화된 메이크업이 이루어졌지만 세기초에는 깨끗한 피부표현, 아이 메이크업은 색상을 배제하고 아이라인과 속눈썹을 풍성하게 하여 포인트를 주고 입술은 너무 글로시하지 않고 본인의 입술색에 가까운 계열로 가볍고 깨끗하게 표현하는 것이 유행되어 지고 있었다. 헤어스타일은 과거에는 정수리 윗부분에 스타일을 내는 올림형으로 윗부분을 풀리는 스타일이 많았다. 세기초에는 짧게 컷된 본인의 헤어를 인위적인 가모를 사용하지 않고 자연스러운 웨이브를 살리거나, 풍성하고 굵은 웨이브를 자연스럽게 늘어뜨리거나, 볼륨감 있는 컬을 만들고 자연스러운 꼬임을 주어 늘어진 듯한 은은한 업스타일을 연출해 내추럴하면서 로맨틱한 스타일이 유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 2. 웨딩드레스

세기말과 세기초의 웨딩드레스 실루엣, 네크라인, 소매 분류, 조사한 결과의 차이 비교는 <표 7>과 같다.

<표 7>에서 결과를 보면, 실루엣은 세기말에는 동형, A라인, 벨형의 실루엣이 유행되다가 폭이 점점 줄어들면서 세기초에는 튜블러 실루엣의 직선적이고 단순한 실루엣으로 변화되었다. 네크라인은 세기말에는 라운드, 하이N, 스퀘어, 스윗하트와 같은 형태에서 오프숄더, 라운드, 캐미솔 등 다양한 네크라인이 공존하는 과도기를 거쳐 세기초에는 어깨를 많이 노출하는 베어드 탑이 유행하였다. 소매는 세기말에는 롱 또는 7부 타이트 소매가 유행되었고, 쇼트소매, 베어드 탑이 공존한 과도기를 거쳐 세기초에는 베어드 탑이 유행하고 있다.

위와 같은 결과에서 볼 때 과거에는 몸매를 많이 드러내지 않는 피트 앤 플레이어의 X라인 실루엣 드레스가 유행되었지만 세기초에는 베어드 탑과 머메이드 드레스와 같은 신부들의 아름다운 몸매를 한 층 돋보이게 하고 색시하면서도 고급스러운 개성을 살리는 다양한 실루엣의 드레스들이 유행되어 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최근에는 패션 트렌드에 맞추어 미니 드레스에 대한 관심이 많아졌다. 대체로 동양인의 신체 프로포션은 미니 웨딩드레스와 완벽한 매치를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웨딩촬영 시 스커트의 풍성한 볼륨감을 살려 얇은 자세로 사진을 촬영하면 사랑스러운 이미지를 표현할 수 있다.




<표 5> 시대별 웨딩코디네이션 변화

구분	시 기 분 포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눈썹	각진형 (검정, 회색)	과도기	아치형 (검정, 회색)	각진형	자연스러운 아치형 (질은 브라운색)	자연스러운 아치형 (질은 브라운색)	두꺼운 아치형 (브라운색)	자연스러운 아치형 (색상을 절제)							
눈화장	오렌지, 와인 (붉은색계열)	핑크, 브라운 (붉은색계열)	오렌지, 브라운 (붉은색계열)	과도기	과도기	과도기	오렌지, 브라운 (질은색)	핑크, 퍼플, 오렌지 (자연스럽게)	핑크, 오렌지, 퍼플, 골드, 화이트(필 사용) (색상을 절제)						
블러셔	오렌지, 브라운 (해당 개념)	오렌지, 핑크 (약하게 채팅)	오렌지, 핑크, 브라운 (월색표현)	과도기	과도기	과도기	오렌지, 핑크 (분홍에 은은하게)	살구, 핑크 (진하게)	핑크, 살구, 오렌지 (자연스럽게)						
입술	레드, 브라운, 진달래색 (과장된 입술)	레드, 오렌지, 브라운 (붉은색 계열)	올림형 (두상 중간 부분에 스타일)	과도기	과도기	과도기	오렌지, 핑크 (질은색계열)	오렌지, 핑크 (열은색계열)	오렌지, 핑크 (립글로스로 자연스럽게)						
헤어 스타일	올림형 (두상 윗부분에 스타일)	올림형 (두상 중간 부분에 스타일)	올림형 (자연스럽게)	과도기	과도기	과도기	과도기	과도기	밀머리형	밀머리형, 풀어내리는 형					
실루엣	똘 형	벨 형	A라인, 벨형	벨 형	벨 형	벨 형	과도기	과도기	과도기	과도기	과도기	과도기	과도기	과도기	과도기
네크라인	라운드, 하이N	스윗하트, 라운드, 스퀘어, 오프숄더	라운드, 스퀘어, 스탠드	라운드, 스퀘어, 스탠드	라운드, 스퀘어, 오프숄더	라운드, 스퀘어, 스탠드	라운드, 스퀘어, 오프숄더	라운드, 스퀘어, 오프숄더, 캐미솔	과도기	과도기	과도기	과도기	과도기	과도기	과도기
소매	퍼프, 7부 퍼프	긴 소매, 7부 타이트, 쇼트	긴 소매, 7부 타이트	긴 소매, 7부 타이트	긴 소매, 7부 타이트	긴 소매, 7부 타이트	긴 소매, 쇼트, 캡, 7부 타이트	7부 타이트, 캡, 쇼트	7부 타이트, 캡, 쇼트	7부 타이트, 캡, 쇼트	7부 타이트, 캡, 쇼트	7부 타이트, 캡, 쇼트	7부 타이트, 캡, 쇼트	7부 타이트, 캡, 쇼트	7부 타이트, 캡, 쇼트
헤드 드레스	화관, 리본, 생화 (큰 사이즈)	화관, 크라운 (큰 사이즈)	머리띠, 화관	머리띠, 화관	머리띠, 화관	머리띠, 화관	화관, 머리띠, 크라운 (작은 사이즈)	과도기	과도기	과도기	과도기	과도기	과도기	과도기	과도기
귀걸이	드롭형 (큰 사이즈)	드롭, 버튼형 (중간 사이즈)	과도기	과도기	과도기	과도기	버튼형	드롭형, 버튼형 (작은 사이즈)	드롭형, 버튼형 (중간 사이즈)	드롭형, 버튼형 (중간 사이즈)	드롭형, 버튼형 (중간 사이즈)	드롭형, 버튼형 (중간 사이즈)	드롭형, 버튼형 (중간 사이즈)	드롭, 버튼형 (다양한 크기)	드롭, 버튼형 (다양한 크기)
목걸이	착용이 절제														
배일	다양한 길이와 형태의 배일 착용														

<표 6> 웨딩메이크업/헤어스타일

분 류	세기말	과도기	세기초
눈 섯	각진형 (검정, 회색)	각진형, 아치형의 짙은 검정, 회색의 공존	자연스러운 아치형 (브라운색)
눈화장	오렌지, 와인, 브라운 (붉은색)	오렌지, 핑크, 브라운 (짙은색, 필 사용)	핑크, 퍼플, 골드, 베이지 (색상을 절제)
블러셔	오렌지, 브라운 (세팅 개념)	오렌지, 핑크색으로 블러셔 강조	핑크, 살구 (자연스럽게)
입 술	레드, 와인, 진달래색 (과장된 입술라인)	브라운, 레드계열 (글로스로 중간에 연출)	핑크, 오렌지(립글로스) 자연스럽게
헤어스타일	올림형 (두상 윗부분에 스타일)	올림형 (두상 중간 부분에 스타일, 밀머리형)	밀머리형, 풀어내리는형
			

<표 7> 웨딩드레스

분 류	세기말	과도기	세기초
실루엣	돔형, A라인, 벨형	넓이가 줄어든 벨형과 튜블러의 공존	튜블러형
넥라인	라운드, 하이N, 스퀘어N	오프숄더, 라운드, 캐미솔 등 다양한 N	캐미솔, 베어드 탑N
소 매	타이트 슬리브, 7부 타이트, 쇼트	쇼트, 베어드 탑 공존	베어드 탑
			

3. 웨딩액세서리




세기말과 세기초의 헤드드레스, 귀걸이, 목걸이, 베

일의 차이 비교 분석한 결과는 <표 8>과 같다.

<표 8>에서 결과를 보면, 헤드드레스는 세기말에는 큰 사이즈의 화관, 머리띠, 꽃 등의 장식과, 왕관 종류



&lt;표 8&gt; 웨딩액세서리

분 류	세기말	과도기	세기초
부 위			
헤드드레스	화관, 머리띠, 크라운(빅 사이즈)	중간 크기의 크라운, 화관 스타일 공존	다양한 크기와 색상의 크라운
귀걸이	드롭형(빅 사이즈)	중간 크기의 드롭형, 버튼형 공존	작은 사이즈의 드롭형, 버튼형
목걸이	착용이 절제됨	착용이 절제됨	착용함(네크라인 변화에 따른 연출)
베 일	다양한 길이, 형태의 베일 연출	다양한 길이, 형태의 베일 연출	다양한 길이, 형태의 베일 연출
			

의 큰 사이즈의 크라운이 사용되었고 과도기에는 화관, 중간 사이즈의 크라운이 사용 되다가 세기초에는 다양한 사이즈와 색상의 티아라와 크라운이 유행되었다. 귀걸이는 세기말에 진주, 꽃모양의 드롭형의 큰 사이즈가 유행하다가 드롭, 버튼형 중간 사이즈의 진주, 크리스탈의 과도기를 거쳐 세기초에는 드롭, 버튼형 작은 사이즈의 크리스탈과 진주가 유행하였다. 목걸이는 세기말에는 거의 착용하지 않았고 세기초에는 베어드 탑이 유행하면서 진주, 크리스탈의 초커, 프린세스 종류의 목걸이 착용이 점차 늘어나게 되었다.

이상의 결과에서 보면 과거에는 꽃이나 리본, 헤어핀 등과 같은 소재를 이용하여 장식하거나 진주, 비즈 장식의 큰 사이즈의 주얼리가 유행되어졌지만 세기초에는 장식이 배제된 심플하고 고급스러운 드레스에 걸맞게 다양한 티아라와 크라운이 사용 되어지고, 웨딩주얼리 또한 고급스러우면서도 화려하고 다양한 것들이 착용되어지고 있었다.

따라서, 과거의 전통적인 웨딩드레스 코드에서 벗어나 최근에는 패션 트렌드를 반영한 미니멀 웨딩드레스가 유행이 되고 있으며 섹시하면서도 고급스러운 심플한 실루엣 그리고 내추럴한 헤어, 메이크업 스타일이 유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 V. 결 론

20세기말부터 현재까지의 웨딩메이크업, 웨딩드레스, 웨딩액세서리 변화를 고찰하고 세기말, 세기초의

코디네이션을 비교한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메이크업과 헤어스타일 변화: 눈썹은 세기말에는 검정색의 각진 눈썹, 과도기에는 각진형과 아치형, 세기초에는 자연스러운 곡선의 브라운색 아치형 눈썹이 유행되었다. 아이섀도도 세기말은 오렌지, 와인색, 과도기에는 오렌지, 핑크계열의 짙은색 그리고 세기초에는 오렌지, 핑크계열의 색상이 톤이 낮아지면서 내추럴하게 변화되었다. 블러셔는 세기말에는 작은 얼굴연출을 위해 갈색으로 섀딩하였고, 볼쪽으로 혈색을 부여하는 블러셔가 공존되는 과도기를 거쳐 세기초에는 핑크, 오렌지 등으로 볼 주위를 가볍게 터치해 자연스럽게 표현되어지고 있다. 입술은 세기말에는 레드, 진달래색 등으로 과장된 입술라인이 유행되었고, 브라운, 와인, 레드계열의 짙은색에 립글로스를 중간에 넣어 글래머스하게 표현하는 과도기를 거쳐 세기초에는 글로시하면서 본인의 입술색에 가까운 핑크계열로 은은하게 변화되었다. 헤어스타일은 세기말에는 두상 윗부분에 스타일을 내는 올림형 스타일에서 두상 중간부분에 스타일을 내는 올림형과 밀머리형의 스타일이 공존되는 과도기를 거쳐 세기초에는 밀머리형과 흘러내리는 듯한 내추럴한 스타일이 유행되고 있다.

둘째, 웨딩드레스 변화: 실루엣은 세기말에는 둥형, 벨형의 실루엣이 유행되다가 폭이 점점 줄어들면서 세기초에는 튜블러 실루엣의 직선적이고 단순한 실루엣으로 변화되었다. 네크라인은 라운드, 하이N, 스퀘어와 같은 형태에서 세기초에는 어깨를 많이 노출하는 베어드 탑이 유행하였다. 소매는 세기말에는 롱 또는 7부 타이

트 소매가 유행되었고, 쇼트소매와 베어드 탑이 공존한 과도기를 거쳐 세기초에는 베어드 탑이 유행하고 있다.

셋째, 웨딩액세서리 변화: 헤드드레스는 세기말에는 큰 사이즈의 화관, 머리띠, 꽃 등의 장식에서 과도기에는 중간 사이즈로 변화되었다가 세기초에는 다양한 사이즈와 색상의 티아라와 크라운이 유행되었다. 귀걸이는 세기말에 진주, 꽃모양의 드롭형 큰 사이즈가 유행하다가 드롭, 버튼형 중간 사이즈의 진주, 크리스탈의 과도기를 거쳐 세기초에는 드롭, 버튼형 작은 사이즈의 크리스탈과 진주가 유행하였다. 목걸이는 세기말에는 거의 착용하지 않았고 세기초에는 베어드 탑이 유행하면서 취향에 따라 목걸이 사용이 점차 늘어나게 되었다.

본 연구결과, 과거의 전통적인 웨딩드레스 코드에서 벗어나 최근에는 패션 트렌드를 반영한 섹시드레스 그리고 내추럴한 헤어·메이크업 스타일이 유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현대는 다양한 개성을 추구하는 사회로 전통적 웨딩코디네이션에서 벗어나 다양한 스타일을 추구하려는 고객의 요구에 의해 많은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웨딩코디네이션 분야에서도 유행 트렌드를 잘 반영하여 다양한 소비자의 미적욕구를 만족 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 참고문헌

- 각지고 길어 보이는 얼굴. (1996, 8). *마이웨딩*, p. 194.
- 권구정, 김선영, 이경선, 김문주, 김찬수, 이경은. (2006). *MAKEUP ICON*. 서울: 청구문화사.
- 김광숙, 이현주, 전연숙, 조진아. (2002). *The Make up* (개정판). 서울: 예림.
- 김명기. (2002). *봄 트렌드 컬러를 응용한 웨딩헤어스타일과 메이크업에 관한 연구*. 청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봉주. (2001). *웨딩드레스에 대한 시각적 감성 연구*.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소영. (2003). *웨딩드레스 이미지에 따른 메이크업 표현에 관한 연구*. 대구가톨릭대학교 디자인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영상. (1996). *예식문화변화에 따른 웨딩드레스 마케팅에 관한 연구*. 한성대학교 경영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원술, 김은희, 이연영. (2004). *토탈 패션코디네이션*. 서울: 예림.
- 김희남. (2003). *웨딩드레스 이미지에 따른 토탈코디네이션 연구-헤어와 메이크업을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생활과학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희숙, 이은임. (1996). *메이크업과 패션*. 서울: 수문사.
- 르네웨딩의 Song of Elegance. (1999, 10). *마이웨딩*, p. 188.
- 박숙현. (2007). *패션 이미지 메이킹* (개정판). 서울: 예학사.
- 배형자. (2002). *웨딩메이크업의 표현기법에 관한 연구*. 대구가톨릭대학교 디자인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신은정, 권혜숙. (2002). *여대생들의 웨딩드레스 이미지 선호도와 자아이미지*. *복식*, 52(5), 31-45.
- 유재숙. (2006). *신부의 웨딩드레스와 화장에 대한 기대 선택 속성과 지각만족 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의류산업학회지*, 8(1), 55-63.
- 윤혜숙. (2000). *Wedding Dress Design & Deco*. 서울: 삶과 문화.
- 이미연. (1999). *디자인 요소에 따른 웨딩드레스와 이미지 지각에 관한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이미연, 이명희. (2000). *웨딩드레스의 디자인 요소와 지각자 성별에 따른 인상형성 연구 (제1보)-실루엣과 네크라인을 중심으로-*. *한국의류학회지*, 25(5), 724-735.
- 이미연, 이명희. (2002). *웨딩드레스의 디자인 요소와 지각자 성별에 따른 인상형성 연구 (제2보)-소재, 소매와 장식유무를 중심으로-*. *한국의류학회지*, 26(8), 1216-1227.
- 이혜성. (1996). *메이크업*. 서울: 정문각.
- 웨딩 유행 예감. (1994, 5). *마이웨딩*, p. 104.
- 절제된 디자인의 포인트 디테일이 더해진 웨딩드레스. (2007, 10). *마이웨딩*, p. 120.
- 정현주, 한유정. (2003). *웨딩헤어 관련 코디네이션의 이미지 지각 (제1보)-여대생을 중심으로-*. *한국의류학회지*, 27(7), 735-745.
- 조미영. (2003). *웨딩 업스타일에 관한 연구-작품 제작과정을 중심으로-*. *한국미용학회지*, 9(3), 167-171.
- 조민희. (2007). *웨딩코디네이션의 선호도 연구-헤어와 메이크업을 중심으로-*. 한남대학교 사회문화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칼라 포인트 웨딩드레스. (1994, 5). *마이웨딩*, p. 128.
- 키가크로 통통한 신부에게 어울리는 레이스 포인트 웨딩드레스. (1999, 10). *마이웨딩*, p. 124.
- 2007 메이크업 트렌드. (2007). *헤럴드경제*. 자료검색일 2008, 3. 21, 자료출처 <http://www.heraldbiz.com>.
- Find your Wedding style. (2007, 12). *마이웨딩*, p. 140.
- Forever with You. (1999, 10). *마이웨딩*, p. 154.
- goddess love. (2007, 3). *마이웨딩*, p. 54.